

#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세계관적 고찰]에 대한 논평

정동섭 (가족관계연구소장, 침례신학대학교 교수, Ph.D.)

최용준 교수는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성경적 관점에서 동성혼의 문제를 다루었다. 우선 창조 질서에 나타난 결혼의 기원에 관해 살펴 본 후에 이것이 어떻게 타락되었으며 동성애 및 동성혼이 언제부터 어떻게 대두되기 시작했는지를 고찰, 분석한 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건강한 결혼 및 가정을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를 다루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상태에서는 어떤 모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성경은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부부간의 언약 관계적 결혼임을 진술하면서 유교도 기독교도 동성혼이 아닌 이성혼을 전제로 함을 상기시키고 있다. 결혼은 어디까지나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배타적 정절의 성적 결합을 통한 언약적 헌신의 평생 연합인 일부일처제를 통해 성립되므로 모든 형태의 일부다처제나 축첩제도 그리고 동성혼(same sex marriage)은 창조 질서에 어긋난 것이다.

부부 관계는 언약적 관계가 중심적이지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혈연적 관계가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다. 동성혼에서는 자녀를 낳을 수 없다. 일단 생물학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하다. 물론 입양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입양된 자녀가 과연 건강한 성적 정체성을 가지고 자랄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 부분이 동성혼이 갖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타락질서 속에 들어오면서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하게 되었고, 가정의 아름다움은 간음, 동성애, 매춘, 살인, 이혼 등에 의해 왜곡되고 변형되기 시작한 것이다.

“너는 여자와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안 된다. 그것은 망측한 짓이다.” (레 18:22) “남자가 같은 남자와 동침하여, 여자에게 하듯 그 남자에게 하면, 그 두 사람은 망측한 짓을 한 것이므로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들은 자기 죄 값으로 죽는 것이다.” (레 20:13) 나아가 르호보암 왕 시절에도 백성들은 여러 군데 산당, 우상 및 목상을 만들었으며 그 신전에 남창들이 있어 혐오스러운 관습을 그대로 본받아 행함으로 주님의 진노를 격발하기도 하였다(왕상 14:22-24).

많은 선지자들은 가정의 파괴가 종말의 징조라고 예언하고 있다. 동성애와 ‘트랜스젠더(trans-gender)’ 또한 이와 같은 세기말적 타락 현상 중의 하나라고 볼 수밖에 없다. 사도 바울도 음행, 간음 및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하면서(고전 6:9b-10), 율법이 제정된 것은 무엇이 옳고 그릇된 것인지를 바로 분별하기 위함이며 동성애 및 동성혼 또한 건전한 교훈에 배치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딤후 1:10).

최후의 심판의 관점에서 동성애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다. 마술쟁이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을 사랑하고 행하는 자는 다 바깥에 남아 있게 될 것이다. (계 22:15)

여기서 ‘개들’이란 극단적 표현은 성적 타락이 극도에 달한 무리를 일컫는 것으로 동성애 및 동성혼 또한 암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도덕적 삶을 사는가에 따라 그리고 어떤 가정생활을 했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받을 것이며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 책임져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필자는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성경적 관점에서 건강한 가정의 모습을 통해 동성애 및 동성혼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과제로서 동성혼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

을 제안하고 있다. 즉 동성애 및 동성혼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위임을 명확히 선포하고 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시도는 장차 건강한 가정을 파괴하는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해야 할 것이라면 결론을 맺고 있다.

최용준 교수는 본 논문에서 창조질서, 타락질서, 구속질서를 거치며 가정과 성이 성서신학적으로 왜 일부다처, 간음, 매춘, 이혼이나 동성혼으로 부패, 변질되었는지를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보건의료적인 측면에서도 동성혼이 자연스럽지 않을 뿐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는 것임을 상술하였다면 더 설득력 있는 논문이 되었을 것이다. 다만 동성애적 경향과 동성애 행동, 그리고 동성혼이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설명해 주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동성애가 보편화되면서 이제는 결혼이 남녀 간의 결합이 아니라 이 사람들(these persons; partners). 이 커플(the couple), 또는 두 사람 사이의 결합으로 이해될 정도로 현대인들의 결혼관이 변화되고 있는데, 이것이 왜 신학적, 윤리적,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를 더 심도 있게 거론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미국장로교, 복음주의 루터교회, 그리스도 연합교회, 영국성공회 등이 동성결혼을 허용하고 있으며 미국연합감리교회(UMC)는 2012년 총회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의하고 안건을 2016년으로 넘긴 바 있다. 남아프리카 네덜란드개혁교회는 2015년 10월 중순 열린 총회에서 총대의 64%가 동성혼 지지표를 던져 이를 통과시켰다. 동성애 사역자들이 파트너와 '결혼'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로써 동성혼을 지지하는 이른 바 '배도'(Apostasy)를 해온 교단은 미국장로교를 비롯, 지난 2014년 4개 교단에 이어 현재까지 최소 5개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정통 개신교단은 앞으로 동성애와 동성혼에 대해 단합된 한 목소리를 내어 이를 합법화하려는 모든 시도를 막아야 할 것이다.

동성애는 본래 상대를 가리지 않는 난잡한 것으로 드러난다. 동성애 남성의 약 2%만이 결혼과 유사한 서약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 동성애자 세계의 대부분이 동성애자를 하나의 상품으로 보고 표면적 특성에 의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는 곧 자신에 대해서도 그와 똑 같은 관점을 발전시키기 시작한다. 동성 결혼은 완전한 의미에서 결혼으로 간주할 수 없고 본질적으로 불안정하다. 뿐만 아니라 동성 간의 항문성교나 구강성교는 치질, 출혈, 장 질환, 성병, 간염, AIDS를 감염시키며, 자연의 순리를 어기는 비정상적인 성행위임은 너무나 자명하다. 동성애자가 AIDS에 걸릴 확률은 183배이며, 지속적 항문 성관계를 하면 괄약근이 파괴되어 변실금 환자가 속출한다는 것도 실제적인 문제가 된다.

성경적 관점에서 동성애는 타락한 세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죄라고 한다. 그렇다고 무조건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창조질서 왜곡의 피해자로 여겨 따뜻하게 대할 필요가 있다. 기독교가 독선과 냉혈한적 태도를 가져선 안 된다. 동성애자들이 과거에 받았던 상처들을 보듬어주고 고민을 들어주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상담센터나 치료기관이 많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완전히 동성애자인 사람이 완전한 이성애자로 변화될 수 있는가? 치료적인 변화는 심리치료와 다른 상담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학적 및 과학적 증거가 많이 축적되고 있다. 치료방법 중에는 종교적인 자조집단 운동(self-help group movements)이 있다. "한 번 동성애면 언제나 동성애일 수밖에 없다"는 말은 타당성이 없는 말로 밝혀지고 있다.

